

단과대 학생회비 인상 “물가상승 원인”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일부 단과대학(단과대) 학생회비가 작년에 비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학생회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적지 않은 학생회비 금액이 신입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회비는 단과대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금액은 단과대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0만 원 내외로 책정된다. 이는 학생회의 학생 자치 활동과 더불어 각종 행사와 사업에 사용되며, 납부 시 각종 단과대 행사 참여 자격을 부여받거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사물함 이용 ▲시험 기간 간식 행사 참여 ▲물품 대여가 있다.

학생회비의 주 인상 요인은 물가 상승이다. 수년간 동결됐던 학생회비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과대 학생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생회비의 주요 사업인 간식 사업 예산 증가 등 예년과 동일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재무적 어려움이 잦은 것이다.

이런 배경을 들어 ▲공과대학(공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자정보대학 ▲국제대학(국제대) 학생회 등이 학생회비 인상을 알렸다. 학생회비 인상폭은 단과대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상이했다. 공대 학생회는 “현재 학생회비로는 학생회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간식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국제대 학생회는 인상 요인으로 ‘납부자 혜택 확대’도 들었다. 국제대 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물품 대여 사업과 같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예술디자인대학(예대)과 음악대학, 경영대학 등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의 학생회비 납부를 안내했다. 예대 김지영(산업디자인학 2020) 학생회장은 학생회비 동결 운영 이유에 대해 “대면 전환 이후 물가 인상에 대비해 타이프하게 운영 예산안을 기획하고 있다”며 “외주 없이 최대한 학생회 내부 인력으로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추후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과대학은 이번 학기 학생회비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체제일 뿐만 아니라 학과 학생회비와 병행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제 막 성인이 돼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학생회비는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비슷한 기간에 학생회비와 신입생 OT 참가비까지 고려하면 납부 금액이 많게는 2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글에는 ‘나는 금액에 비해 혜택이 적다’, ‘안 내는 사람이 승자’ 등의 납부를 고민하는 의견들도 있다.



방학 기간 중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과 양캠퍼스 도서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됐다.

(사진=황인찬 기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새 단장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중앙도서관이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개편은 이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 개편은 양캠퍼스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시스템 이용환경 최적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lib.khu.ac.kr로 변경됐다.

개편 이전에는 양 캠퍼스 홈페이지를 각각 분리 운영해 왔지만 각 홈페이지 사이 연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김지영 과장은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간 로그인 오류로 재 로그인을 해야 하는 상황도 대폭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기능도 추가됐다. My Library 메뉴를 개설해 이용자 맞춤형 기능을 강화했다. 해당 메뉴에서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 신청내역과 처리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하고 독서취향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도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통합 앱도 개발됐다. 신규 앱에서는 기존 앱에서 제공하지 않던 자료검색, 도서 대출관리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김 과장은 “모바일 접속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편 과정 중 모바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찾은 오류로 신규 앱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글에는 ‘로그인하고 좌석예약하려니 재로그인 하라네’, ‘도서관 앱 심사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기존 앱보다 별로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중앙도서관 측은 “로그인 처리와 뒤로가기 오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업체와 지속적인 개선 작업 중”이라며 “개편 초기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방학 기간 중 새 단장을 마쳤다. 1층 Media Commons와 제2열람실을 통합해 카페형 ‘벤티 열람실’로, 2층 Research Commons는 ‘혜음 열람실’로 개편됐다. 현재는 개방돼 정상이용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복지몰 OPEN★



경희대학교 복지몰(khumall)이란?

개인이 성향·기호·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복지콘텐츠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구성원 대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사이트입니다.

※ Info21 계정이 존재하는 경희대학교 구성원(졸업 동문 포함) 모두 이용 가능!

★이용방법★

01

경희대학교
복지몰 접속
(mail.khu.ac.kr)

02

'회원가입'
클릭!

03

구성원인증하기
(Info21 ID 및
비밀번호 입력)

04

복지몰 사이트
회원가입 진행 및
사이트 이용

※ 복지몰, 이런 점이 좋아요 ♥

1. 오직 '경희인'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특가 상품 및 서비스!
전자기기, 여행, 숙박, 공연, 영화, 건강식품, 도서, 강의 등 없는 게 없어요!
2. 복지몰 이용만 했는데 학교에 기부가?! / 쇼핑도 하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
구매금액 중 도서 5%, 제휴서비스 1%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적립됨 (무기명 기부 형태)
3. PC 뿐만 아니라 APP을 이용하여 편리한 쇼핑 가능!
'꿈꾸는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사 아이디]에 'khumall' 입력하여 사용
(단, PC버전을 통해 복지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함)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